

‘2025년 4월4일’ 대한민국 운명의 날 정해졌다

현재,尹 탄핵심판 오전11시 선고
강기정 “국민 듣고 싶은 말 ‘파면’”
김영록 “8대0 인용 판결 나올 것”
“국민 열망에 맞는 판결 내려지길”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 이뤄진다.

헌법재판소는 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8)의 선고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공식 공지했다.

선고는 현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되며,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3일, 윤 대통령이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따라 같은해 12월14일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만이다. 이는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비교했을 때 3배 이상 소요된 역대 최장 심리다.

현재 재판관들은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 당일 오전 일찍 평의를 열고 최종 평결을 통해 결정문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계엄 선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위헌 행위”라면서 재판관들에게 “윤 대통령을 파면해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4일로 발표된 1일 서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앞에 대통령 탄핵 사건 관련 안내문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 조치에 불과했으며, 선포 및 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 위반이 없었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는 지시도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변론을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는) 제약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만큼,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선고는 향후 정권은 물론 헌정질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온 국민의 이목이 현재의 결정에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 또한 각자의 입장을 내놓으며 현재의 판단을 주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의 선고기일 지정

과 관련해 “현재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통해 민주공화국의 국체와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히며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의도에 따른 무리한 탄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재판관들의 판단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조속히 결론을 도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려면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8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반면 인용이 5명 이하일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고 남은 임기를 보장받는다.

이번 심판은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등 8명의 재판관이 맡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확정되자, 지역 정치권에서도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단식, 행진, 식발, 농성, 삼보일배, 밤샘시위... 4월 4일 오전 11시,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은 ‘파면’”이라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국민이 바라고 바라던 선고기일이 지정됐다. 만시지탄이 지만 환영한다”며 “국민들의 염원을 받들어 8대 0으로 인용 판결이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 윤석열 파면을 전일일치 판결로 심판해 불의한 모든 것을 털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 박근택(광산갑) 의원은 “선고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은 결국 상식에 맞는 방향으로 재판관들이 판단을 모았다는 뜻”이라며 “생중계까지 허용한 것을 보면 현재가 떳떳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결론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관련기사 2·3·4·5면
오지현·정성현·정상이 기자

오늘 재·보궐선거... 담양군수 ‘촉각’

담양군수 재선거가 2일 치러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 간 팽팽한 접전이 이어지면서 선거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1일 오후 5시 담양읍 중앙공원에서 이재종 후보 당선을 위한 마지막

집중유세를 펼쳤다. 이날 유세에는 주철현 전남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인 이개호 의원, 황명선·한준호 의원, 안귀령 대변인 등 지역 및 중앙 관계자들이 참석해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농·축산물 유통혁신을 통

민주 이재종 “부자 농촌”
혁신 정철원 “인구 10만”

한 잘 사는 부자농촌 △지역교육 혁신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특별군 담양 △아이키우기 좋은담양 △달빛철도와연계한 광역철도 구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 중앙 정부와의 스킨십을 강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공약을 위주로 한 선거

전을 펼쳤다.

혁신당도 이날 김선민 권한대행을 필두로 황명필 최고위원, 서왕진·신장식·강경숙 의원 및 서희원 전남도당위원장 등 지도부가 담양을 찾아 정철원 후보 지지를 위한 마지막 유세를 벌였다.

정 후보는 △내륙관광 1번지, 생태정원 도시 구체적 청사진 제시 △담양형 생애 주기 맞춤형 돌봄정책 △제2일반산단 기

반 양질의 일자리 확충 △농촌형 공공주택 확충을 기반으로 한 인구 10만 기틀 마련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편 전남에서는 담양군수 외에 담양군 의원, 광양시의원, 고흥군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재·보궐선거 본투표는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며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투표가 가능하다. 오지현 기자

상·하수도 비굴착

• 국내 최초 상·하수도 공용 전체보수공법
『환경부신기술 제508호 T.S.L공법』

• 하수도 부분보수공법
『환경부신기술 제426호 O.P.L공법』

굴착교체의 문제점

하수관 보수 공사시 일반적으로 굴착 후 신관교체를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소음이나 교통체증 등 문제가 발생하며 안전사고 위험도 크다



비굴착 보수공법의 특징

- 굴착을 수반하는 하수관 보수공사에 비해 공사비 저렴
- 투입인원! 인건비 절감
- 하수관 내에 형성된 현장 경화관의 수명을 향후 50년으로 전망
- 단순한 시공 공정으로 안전사고 감소
- 터미널관과 접촉으로 인한 위험성 해소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글로벌기업 (유)탐환경건설·(주)탐앤제이”

환경을 생각하고 미래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글로벌 리더로 거듭나겠습니다.



(유) 탐환경건설



(주) 탐앤제이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양일로 18번길 20
Tel 062)376-5599 Fax 062)376-0094